

4, 5세 아동의 틀린 믿음, 정서, 언어와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김 경 아* 이 현 진** 권 은 영**

*영남대학교 국어생활상담연구센터 **영남대학교 유아교육과

본 연구에서는 틀린 믿음, 정서, 언어와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4세와 5세 아동 60명에게 수용 어휘력 검사, 틀린 믿음 과제(위치변화 과제), 언어 과제(보문 과제), 정서조망수용 과제를 실시하고, 사회적 기술 척도를 사용하여 사회적 행동을 측정하였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4세와 5세 아동의 어휘력은 정서조망수용 능력 및 사회적 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4세 아동의 틀린 믿음 수행은 정서조망 수용 능력과 정적 상관이 있는 반면, 5세 아동의 틀린 믿음 수행은 보문 이해와 사회적 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사회적 행동과 관련하여 틀린 믿음과 정서 이해는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행동을 예측해 주는 주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동시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4세 아동의 어휘력과 5세 아동의 틀린 믿음 수행이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였다. 또한 5세 아동의 보문 이해가 틀린 믿음 수행을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어휘력과 틀린 믿음 수행은 사회적 행동과, 그리고 보문 이해는 틀린 믿음 수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주요어: 틀린 믿음, 정서조망수용, 어휘, 보문 이해, 사회적 기술

아동은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 아동이 타인과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능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최근의 연구자들은 상대방의 마음이나 정서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적 능력이 사회적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를 제

* 교신저자: 이현진, E-mail: hjlee@ynu.ac.kr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KRF-2006-H00013).

* 본 연구에 참여해 준 경산유치원과 예나유치원 아동들과 학부모님들,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통계처리에 도움을 주신 조영희 교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해 왔다.

마음이론은 사람의 행동이 바람, 의도, 믿음과 같은 마음상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마음 상태를 추론하는 능력을 말한다. 초기의 마음이론 연구자들은 주로 인지적 측면에서 마음이해를 접근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Wellman 등 (Bartsch & Wellman, 1995; Wellman, 1990)이나 Perner(1991)는 마음이론 발달을 표상과 관련된 개념발달로 접근하였다. 이들은 2세경의 어린 아동들은 마음을 표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3세경이 되면서 마음의 표상적 특성을 이해하게 된다고 하였다. 4세가 되면 상위표상을 이해하여 틀린 믿음과 같은 고차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틀린 믿음이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믿음으로서 사실과 다르게 마음에 표상한 것을 의미한다(Bartsch & Wellman, 1989). 따라서 틀린 믿음을 이해하는 능력은 타인의 믿음을 자신의 믿음과 구분하여 정확하게 표상하는 능력과 타인의 믿음에 대한 표상에 근거하여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Carpendale & Lewis, 2006). 인지적 측면에서 마음이론을 접근한 수많은 연구들은 이론적 논쟁에 참여하면서 인지발달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하여 왔다.

최근에 연구자들은 마음이론 발달이 인지발달 영역에서 이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기반이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마음이론과 사회적 행동 또는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특히 4세 이후에 발달되는 틀린 믿음 이해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주목하였다.

Astington과 Jenkins(1995)는 3-5세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틀린 믿음과 가장놀이에서 보이는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래들과 가장놀이에 참여하여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틀린 믿음

수행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틀린 믿음 수행을 잘한 아동은 역할을 정하여 노는 가장놀이에서 적절한 놀이역할을 배정하고, 또래 친구들에게 놀이에 함께 참여하자는 권유를 하는 사회적 능력이 뛰어났다는 결과는 틀린 믿음 이해가 놀이에서 역할배정이나 권유하기와 같은 사회적 능력과 관련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Lalonde와 Chandler(1995)는 3세 아동 47명을 대상으로 틀린 믿음과 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있는데, 사회적 행동에는 협동놀이를 하는 것과 같은 의도적인 사회적 행동과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관습적인 사회적 행동을 포함하였다. 3세 아동의 틀린 믿음 이해는 협동놀이를 하거나 게임 규칙을 준수하는 능력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에 반해 '미안하다' 또는 '고맙다'고 말하는 사회적 관습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틀린 믿음 이해가 의도를 포함하는 사회적 행동과는 관련되지만 관습적으로 행하는 행동과는 관련되지 않는다는 결과는 사회적 행동에 마음상태 이해가 기반이 될 가능성을 시사해 주었다.

Watson, Nixon, Wilson과 Capage(1999)는 3-6세 아동 52명을 대상으로 언어 능력, 틀린 믿음, 인기도를 측정하고, 교사로부터 아동의 사회적 기술을 측정하였다. 이들은 아동들의 언어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어와 문장 이해력을 측정하는 듣기 이해력 검사(Test for the Auditory Comprehension of Language)를 사용하였다. 아동의 연령과 언어 능력을 통제하였을 때, 틀린 믿음 수행이 아동의 태도와 행동에서 반영되는 사회적 기술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는 결과를 토대로 틀린 믿음 이해가 사회적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Slaughter, Dennis와 Pritchard(2002)는 4-6세 아동 92명을 대상으로 틀린 믿음과 또래 인기도, 공

격성, 친사회성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이 변인들 간의 관계가 연령에 따라 다른 것을 보고하였다. 4세 아동의 또래 인기도는 공격성이나 친사회성과 관련이 있었으나 틀린 믿음 수행과는 관련이 없었다. 반면, 5세 아동의 경우 틀린 믿음 수행이 또래 인기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으로서 틀린 믿음 수행이 뛰어난 아동이 또래 인기가 높았다. 이들은 틀린 믿음 수행을 잘 한 아동은 또래로부터 인기를 유도해 낼 수 있고, 또래로부터 인기 있는 아동은 유능한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보면 틀린 믿음 수행과 사회적 행동의 관계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르고, 또한 사회적 행동을 무엇으로 측정했는가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틀린 믿음과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신유림(2004)은 4세와 5세 아동 145명을 대상으로 어휘력, 틀린 믿음, 또래 인기도를 측정하고, 교사에게 아동의 공격성과 친사회성을 평정하게 하였다. 이들 변인들 간에 연령차는 없었으며, 틀린 믿음 수행은 어휘력, 또래 인기도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틀린 믿음 이해 능력이 높은 아동은 또래들로부터 인기가 있고 어휘력도 발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혜리와 이숙희(2005)는 5세 아동에게 틀린 믿음 과제를 실시하고 교사에게 아동의 공격성, 의도적 사회적 행동, 관습적 사회적 행동을 평가하게 하였다. 그 결과 5세 아동의 틀린 믿음 수행은 인기도, 의도적인 사회적 행동, 관습적인 사회적 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공격성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5세 아동의 인기도를 예측하는 변인은 공격성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공격적이지 않은 아동이 또래들로부터 인기가 있지만 틀린 믿음을 잘 이해한다고 해서 공격성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덜 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마음 이해와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접근한 연구자들은 정서 이해가 틀린 믿음과 같은 마음 이해와는 구별된다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Cassidy, Werner, Rourke, Zuberneis, & Balaraman, 2003; Cutting & Dunn, 1999; Dunn, 1995, 2000; Eisenberg & Fabes, 1998; Sutton, Smith & Swettenham, 1999). Dunn(1995)은 종단 연구를 통해 3세경에 틀린 믿음 이해 능력이 또래에 비해 성숙한 아동은 6세가 되었을 때 친구관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교사의 비판에 민감하며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는 사회적 활동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반면에 어려서 또래에 비해 정서 이해를 잘 하는 아동은 학교생활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틀린 믿음과 정서 이해가 상이한 발달 경로를 거치며 사회적 행동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Sutton, Smith와 Swettenham(1999)은 틀린 믿음과 정서 이해 능력이 또래 괴롭힘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에 서로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7-10세 아동 193명을 대상으로 또래 괴롭힘에서의 역할을 가해자, 피해자, 보조자, 강화자, 방어자, 방관자로 나누어 역할에 따라 아동의 틀린 믿음 이해 능력을 측정된 결과 정교하게 또래 괴롭힘을 주도하는 아동의 틀린 믿음 수행이 높은 것을 보여주었다. 즉, 틀린 믿음 수행이 높은 아동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조작하면서 또래를 괴롭히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반면에 정서 추론 능력이 높은 아동들은 또래 괴롭힘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상대적으로 덜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사람의 정서를 추론하는 능력과는 달리 틀린 믿음과 같은 인지적인 마음 이해 능력이 또래 괴롭힘과 같은 반사회적 행

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틀린 믿음 이해와 정서 이해가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에 있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련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들과는 달리, Cassidy, Werner, Rourke, Zubernis와 Balaraman(2003)은 4-6세 아동 67명을 대상으로 틀린 믿음 이해와 정서 이해 능력이 일반적인 사회적 기술 및 친사회적 행동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틀린 믿음 수행은 일반적인 사회적 기술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였지만 친사회적 행동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정서조망수용능력은 또래로부터 도움이나 지원, 위로받기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하여 틀린 믿음 이해와 정서 이해가 서로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5세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 김경미, 김혜리, 정명숙, 양혜영, 구재선(2008)은 마음읽기와 정서읽기 과제, 사회적 기술, 공격성, 친사회성과 공감 척도를 실시하여 마음이론과 사회적 능력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5세 아동의 마음읽기는 사회적 기술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지만 친사회적 행동이나 공격성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정서읽기는 사회적 기술, 친사회적 행동, 공격성, 공감 능력 모두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공감 능력은 아동의 사회적 행동 모두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5세 아동의 공감 능력이 다양한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변인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상의 연구들은 틀린 믿음 이해와 정서 이해가 사회적 행동에 있어 중요하고, 사회적 기술이나 친사회적 행동, 그리고 공격성이나 또래 괴롭힘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에 있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틀린 믿음과 정서 이해 이외에 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을 또 다른 변인은 언어이다(Astington & Jenkins, 1999; Astington, 2003; Carpendale & Lewis, 2006; Cassidy 등, 2003; Hughes & Leekam, 2004; Watson 등, 1999). Watson 등(1999)은 3-6세 아동의 단어와 문장 이해력이 틀린 믿음 이해 및 사회적 기술과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Slaughter 등(2002)은 4-6세 아동의 어휘력이 틀린 믿음 이해, 친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신유림(2004)도 4-5세 아동의 어휘력이 틀린 믿음 이해, 친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어휘를 제외한 다른 언어 능력이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외는 달리 Cassidy 등(2003)은 수용 어휘력, 표현 어휘력, 의미 능력, 통사 능력 모두가 사회적 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으며, 이와 같은 일반적인 언어 능력이 사회적 행동을 예측해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이 결과를 토대로 아동이 성장하면서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틀린 믿음이나 정서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언어와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어의 어떤 요소를 측정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을 볼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첫째, 틀린 믿음 이해가 사회적 행동을 예측해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틀린 믿음 이해와 정서 이해가 사회적 행동과 다른 방식으로 관련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셋째, 선행 연구들은 5세 아동들에게서는 틀린 믿음이 사회적 행동을 예측해 주는 변인이지만 4세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틀

린 믿음이 사회적 행동과 관련하여 연령에 따라 다른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넷째, 언어 능력이 사회적 행동을 예측해 줄 수 있는지, 예측해 준다면 언어의 어떤 요인이 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방 법

실험 대상

실험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에 소재한 사립유치원과 단설 공립유치원에 재원중인 4세와 5세 아동 60명(남아: 34명, 여아: 2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4세는 평균연령 4년 6개월(월령범위: 4년 4개월-4년 11개월, 표준편차: 2.04개월)이 된 아동 30명(남아: 17명, 여아: 13명)이었다. 5세는 평균연령 5년 6개월(월령범위: 5년 1개월-5년 8개월, 표준편차: 1.98개월)이 된 아동 30명(남아: 17명, 여아: 13명)이었다.

연구 도구

연구 도구로 어휘력 측정 과제, 언어 과제, 틀린 믿음 과제, 정서조망수용 과제, 사회적 기술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어휘력 측정 과제

아동의 어휘력을 측정하기 위해 PPVT (Peabody Picture Vocabulary Test)의 한국어판인 그림어휘력 검사(김영태, 장혜성, 임선숙, 배현정, 1995)를 실시하였다. 이 검사에서는 아동에게 단어를 들려준 후 4개의 그림을 제시하고 그 그림 중에 단어에 맞는 그림을 찾아내도록 한다.

언어 과제

본 연구에서는 언어 과제로 이현진, Farrar, Seung, 김경아, 채민아, 권은영(2008)에서 사용한 과제 중 ‘원하다’와 ‘생각하다’를 포함하는 문장 과제를 사용하였다. ‘원하다’는 바람을 표현하는 마음 상태 동사로 시제를 포함하지 않는 부정보어절을 취한다(예, 현종이는 사과를 먹기를 원했다). ‘생각하다’는 믿음을 표현하는 마음상태 동사로 시제가 포함된 문장보어절을 취한다(예, 은종이는 현종이가 사과를 먹었다고 생각했다). 이 과제에서는 컴퓨터로 그림을 보여주면서 아동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기주 아빠와 엄마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빠가 엄마에게 기주가 뭐하고 있는지를 물었어요. 엄마가 아빠에게 기주가 뭐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아빠는 기주가 사과를 먹어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기주가 사과를 먹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기주가 동생과 씨름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준 후 “엄마는 기주가 뭐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뭐를 하기를 원했는지”를 물었다. 각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한 경우에 1점을 주었다. 총 4 종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기에 언어 과제에서 얻을 수 있는 점수는 8점이었다(생각하다: 4점, 원하다: 4점). 과제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틀린 믿음 과제

틀린 믿음에 대한 이해는 위치변화 과제를 통해 측정하였다. 틀린 믿음 위치변화 과제는 이현진 등(2008)에서 제작한 것을 일부 사용하였다. 이 과제에서는 아동들에게 컴퓨터로 그림을 보여주고 이에

상응하는 이야기를 들려준 후 틀린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예를 들면, 정우가 부엌 찬장 속에 넣어 두고 나간 케이크를 엄마가 냉장고로 옮긴 후 정우가 돌아와 어디에서 케이크를 찾을까 라는 틀린 믿음 질문에 ‘찬장’이라고 답한 경우에 과제를 통과한 것으로 1점으로 채점하였다. 총 4과제가 제시되었고 위치변화 과제에서 얻을 수 있는 점수는 4점이었다. 과제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정서조망수용 과제

본 연구에서 정서조망수용 능력은 Denham(1986), Howlin, Baron-Cohen과 Hadwin(1999)의 연구에서 사용된 정서조망수용 과제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검사의 준비단계에서 아동이 얼굴 표정과 기본 정서를 연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쁨, 슬픔, 화남, 무서움의 기본 정서를 나타내는 4장의 얼굴표정을 보여주었다. 4가지 기본 정서에 대한 얼굴표정을 정확하게 선택한 아동에게 정서조망수용 과제를 실시하였다.

정서조망수용 과제는 8장의 그림으로 구성하였는데, 이 가운데 4장은 이야기상황과 얼굴표정이 일치하는 그림이고, 나머지 4장은 이야기상황과 얼굴표정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아동에게 4가지 정서를 일으키는 상황을 들려주고 그 상황에서 등장인물이 경험하는 정서가 어떠한지를 질문하였다. 아동의 이해를 돕기 위해 컴퓨터로 정서에 상응하는 그림을 제시하였다.

정서조망수용 과제에서 아동이 기본 정서와 이야기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반응을 할 때는 1점, 아동이 단지 표정단서에만 의존하여 반응하거나(예, 웃어요, 울어요), 무반응 또는 모른다고 답할 때는 0점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정서조망수용 과제에서 얻을 수 있는 점수는 8점이었다(일치 표정:

4점, 불일치 표정: 4점). 검사 질문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사회적 기술 척도

아동의 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사회적 기술 척도(The Social Skills Rating System, SSRS)는 Gresham과 Elliott(1990)이 개발한 질문지 형식의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취학전 아동용 사회적 기술 척도(K-SSRS)를 사용하였다(서미옥, 2004). K-SSRS는 교사평정용과 부모평정용 척도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척도를 모두 사용하였다. 교사평정용은 협력성(예, 게임이나 놀이를 할 때 자신의 순서를 지킨다), 주장성(예,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한다), 자기통제(예, 동료와의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한다)의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부모평정용은 이 3가지 요인 외에 책임성(예,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요구를 공손히 거절한다) 요인이 추가되었다. K-SSRS는 ‘전혀 그렇지 않다(0점)’, ‘가끔 그렇다(1점)’, ‘자주 그렇다(2점)’의 3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사회적 기술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측정되었으며, K-SSRS의 교사평정용 전체 척도는 Cronbach's α 가 .88로 나타났고, K-SSRS의 부모평정용 전체 척도는 Cronbach's α 가 .83으로 나타났다.

실험 절차

모든 아동들에게 그림 어휘력 검사를 먼저 실시하였다. 그 다음에 틀린 믿음 위치변화 과제, 언어 과제, 정서조망수용 과제는 과제 제시 순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균형을 맞추어 제시하였다. 실험은 2명의 실험자가 실시하였고, 실험자간 변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설명하고 질문하는 방식을 동일하게 하였다. 실험자는 각 유치원의 독립된 공간에서 노트북을 사용하여 제작된 그림을 아동에게 보여주면서 각 그림에 상응하는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었다. 실험은 일주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전 과정은 비디오카메라로 녹화하였다.

아동의 사회적 기술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사원이 유치원을 방문한 후 교사용 질문지는 담임교사가, 부모용 질문지는 유치원장과 담임교사의 협조를 받아 알림장을 통하여 각 가정에서 아동의 어머니에게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 질문지 배부 2주일 뒤 조사원이 다시 유치원을 방문하여 교사용 질문지와 부모용 질문지를 수거하였다.

결 과

각 과제에서의 수행

아동들의 틀린 믿음, 정서조망수용, 어휘, 보문, 이해와 사회적 기술 점수의 전체, 연령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결과와, 각 점수에서 연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어휘력, 보문 이해, 틀린 믿음 수행과 정서조망수용 능력 및 사회적 기술 점수에서 모두 유의미

한 연령차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5세 아동들이 4세 아동들보다 어휘력이 뛰어났고, 보문구조에 대한 이해를 잘 했다. 또한 틀린 믿음에 대한 이해와 정서조망수용 능력이 뛰어났고, 사회적 기술 점수도 높았다.

틀린 믿음, 정서, 언어와 사회적 기술 점수 간의 상관관계

틀린 믿음, 정서, 언어와 사회적 행동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틀린 믿음, 정서조망수용, 어휘, 보문 이해, 사회적 기술 점수에 대한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4세 아동들의 상관관계는 표 2에, 5세 아동들의 상관관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4세 아동들의 어휘력은 정서조망수용과 사회적 기술 점수와는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나머지 변인들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어휘력이 높은 아동은 정서조망수용 능력이 뛰어났고 사회적 기술 점수도 높았다. 틀린 믿음 수행은 정서조망수용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지만, 그 밖의 다른 변인들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틀린 믿음 과제를 잘 수행 한 아동들의 정서조망수용 능력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 아동의 경우에서 틀린 믿음 이해는 정서 이해

표 1. 틀린 믿음, 정서, 언어와 사회적 기술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각 점수에 대한 *t* 검증 결과

	점수범위 (점)	4세 (n=30)	5세 (n=30)	<i>t</i>
어휘	14-89	52.57(15.14)	65.17(18.26)	2.91**
보문	0-8	5.27(2.66)	7.63(.96)	4.57***
틀린 믿음	0-4	.67(1.32)	2.90(1.56)	5.98***
정서조망수용	2-8	4.67(1.37)	5.87(1.07)	3.77***
사회적 기술	46-100	70.00(9.07)	75.83(13.42)	1.98*

* $\rho < .05$ ** $\rho < .01$ *** $\rho < .001$

표 2. 틀린 믿음, 정서, 언어와 사회적 기술 점수의 상관관계(4세)

	보문	어휘	틀린 믿음	정서조망수용	사회적 기술
보문	-				
어휘	.236	-			
틀린 믿음	-.003	.236	-		
정서조망수용	.308	.530**	.393*	-	
사회적 기술	.118	.507**	-.037	.069	-

* $p < .05$ ** $p < .01$

표 3. 틀린 믿음, 정서, 언어와 사회적 기술 점수의 상관관계(5세)

	보문	어휘	틀린 믿음	정서조망수용	사회적 기술
보문	-				
어휘	.039	-			
틀린 믿음	.364*	.154	-		
정서조망수용	-.249	.384*	.074	-	
사회적 기술	.235	.369*	.484**	.261	-

* $p < .05$ ** $p < .01$

와, 그리고 정서 이해는 어휘력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변인은 어휘임을 보여주었다.

표 3에서 5세 아동들의 틀린 믿음 수행은 4세 아동들과는 달리 보문 이해, 사회적 기술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지만 정서조망수용과 어휘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틀린 믿음을 잘 수행한 아동들은 보문 이해를 잘 했고 사회적 기술 점수가 높았다. 어휘는 4세 아동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술, 정서조망수용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지만 틀린 믿음과 보문 이해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5세 아동들의 결과는 4세 아동들과 다소 다른 패턴을 보여 주었다. 5세 아동들의 틀린 믿음 이해는 사회적 행동과 상관을 보이지만, 정서 이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틀린 믿음 수행은 언어 능력 중 보문구조에 대한 이해와는 관련되지만 어휘력과는 관련이 없음을 보여 주었다.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들의 영향력

틀린 믿음, 정서조망수용과 언어 능력이 사회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지와 그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보문, 어휘, 틀린 믿음, 정서조망수용 능력을 예측변인으로 하여 4세 아동과 5세 아동 각각에 대해 동시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와 5에 제시하였다.

4세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동시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R^2=.322$, $F(4, 25)=2.97$, $p<.05$. $R^2=.322$ 로 4세 아동의 사회적 행동의 약 32%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표 4에서 각 변인들의 Beta 계수 값을 살펴보면, 4세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변인은 어휘력이었다, $\beta=.653$, $p<.05$. 어휘력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어휘력이 높을수록 협력성, 주장성, 자기 통제, 책임성과 같은 사회적 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세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동시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R^2=.351$, $F(4, 25)=3.38$, $p<.05$. $R^2=.351$ 로 5세 아동

표 4. 사회적 행동에 대한 동시적 회귀분석(4세)

변인	B	SE	β	t	R ²	F
보문	.145	.598	.043	.243	.322	2.97*
어휘	.391	.117	.653	3.344*		
틀린 믿음	-.625	1.242	-.091	-.503		
정서조망수용	-1.681	1.404	-.255	-1.197		

* $p < .05$

표 5. 사회적 행동에 대한 동시적 회귀분석(5세)

변인	B	SE	β	t	R ²	F
보문	1.768	2.536	.127	.697	.351	3.38*
어휘	.175	.130	.238	1.341		
틀린 믿음	3.343	1.518	.389	2.202*		
정서조망수용	2.161	2.297	.173	.941		

* $p < .05$

의 사회적 행동의 약 35%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표 5에서 각 변인들의 Beta 계수 값을 살펴보면, 5세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변인은 틀린 믿음 수행이었다, $\beta = .389, p < .05$. 틀린 믿음 수행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틀린 믿음 수행을 잘 할수록 협력성, 주장성, 자기 통제, 책임성과 같은 사회적 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4세 아동들의 어휘력과 5세 아동들의 틀린 믿음 수행이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틀린 믿음, 정서, 언어와 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4세와 5세 아동 60명에게 수용어휘력 검사, 틀린 믿음 과제(위치변화 과제), 언어 과제(보문 과제), 정서조망 수용 과제를 실시하고, 취학전 아동용 사회적 기술

척도를 사용하여 사회적 행동을 측정하였다.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틀린 믿음과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4세와 5세 사이에 발달적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4세 아동의 틀린 믿음 수행은 사회적 기술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지만, 5세 아동의 경우에는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하지만 틀린 믿음과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접근한 선행연구들은 연령과 관련하여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3세 정도의 아동의 틀린 믿음 수행이 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Astington & Jenkins, 1995; Lalonde & Chandler, 1995; Watson 등, 1999). 반면에 Slaughter 등(2002)은 4세 아동의 틀린 믿음 이해는 또래 인기도와 상관이 없었으나 5세 아동의 경우에는 상관이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며 연령에 따라 이 두 변인들 간의 관계가 다름을 시사해 주었

다. Cassidy 등(2003)은 4-6세 사이의 아동의 틀린 믿음 수행이 사회적 기술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한국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틀린 믿음 수행과 사회적 행동과의 유의한 상관을 주로 5세 아동들에게서 보고하고 있다(김경미 등, 2008; 김혜리와 이숙희, 2005). 또한 신유림(2004)은 4세와 5세 사이에 발달적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어떤 종류의 사회적 행동을 측정 대상으로 삼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제기해 준다. 어린 아동들에게서 틀린 믿음과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은 가장놀이나 의도가 포함된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Astington & Jenkins, 1995; Lalonde & Chandler, 1995). 3세경에 가장놀이(Custer, 1996; Hickling, Wellman, & Gottfried, 1997)나 의도(Shultz, Wells, & Sarda, 1980)에 대한 상위표상을 형성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은 틀린 믿음과의 관련성을 예측하게 해 준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측정된 협력성은 아동이 집단활동에 잘 참여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의미하고, 주장성은 또래에게 칭찬을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을 나타내며, 자기통제는 갈등상황에서 적절하게 감정을 조절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책임성은 맡은 일을 적절히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행동은 보다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므로 다소 늦게 발달되고(김영옥, 2005; Gresham & Elliott, 1990), 이러한 발달적 차이 때문에 틀린 믿음과의 관련도 5세가 되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틀린 믿음 이해와 정서 조망 이해와의 관계는 연령에 따라 달라짐을 볼 수 있었다. 4세 아동의 경우에는 틀린 믿음 수행이 정서

조망수용 능력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지만, 사회적 기술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5세 아동의 경우에는 틀린 믿음 수행이 정서조망수용 능력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고, 사회적 기술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또한 정서조망수용 능력과 사회적 기술 간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동시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을 살펴 본 결과에서도 4세 아동의 경우 틀린 믿음과 정서조망수용 능력 모두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5세 아동의 경우 틀린 믿음 수행은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였지만 정서조망수용 능력은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마음 이해와 정서 이해의 발달이 사회적 행동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김경미 등, 2008; Cassidy 등, 2003; Cutting & Dunn, 1999; Dunn, 1995; 2000; Sutton 등, 1999)들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Cassidy 등(2003)은 틀린 믿음과 정서 이해는 모두 마음의 구성요소들이지만 사회적 행동과 관련해서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정서 이해는 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 하거나 나누고 협력하는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되는 반면에, 틀린 믿음 이해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 관계를 유지시키는 인지적 요소가 포함되는 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기술로 측정된 협력성, 주장성, 자기 통제, 책임성에 인지적인 판단이 요구된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Cassidy 등의 설명과 맥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4세 아동에게서는 이러한 패턴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틀린 믿음 이해와 정서 이해가 서로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마음 이해와 관련된 구성요소들이

미분화된 상태로 있다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분화될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다른 한편, 연령이 증가하면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기회가 많아지고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틀린 믿음 이해 능력을 더욱 필요로 하기에 (Astington, 2003; Carpendale & Lewis, 2006; Cassidy 등, 2003; Hughes & Leekam, 2004), 5세 아동의 틀린 믿음 이해는 정서 이해보다 사회적 행동과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언어 능력과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선행 연구들은 언어 능력과 사회적 행동의 관계에 대해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Watson 등(1999)은 3-6세 아동의 단어나 문장 이해력이 사회적 기술을 예측해 주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Slaughter 등(2002)과 신유림(2004)도 4세와 5세 아동의 어휘력이 사회적 선호도를 예측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Cassidy 등(2003)은 4-6세 아동의 일반적인 언어 능력이 사회적 기술을 예측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 능력과 관련하여 어휘력과 보문 이해 능력을 측정하였다. 어휘력은 4세와 5세 아동들 모두에게서 사회적 기술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는 반면에, 보문 이해 능력은 어떤 연령에서도 사회적 기술과 관련되어 있지 않았다.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이 무엇인지 살펴본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4세 아동의 경우 어휘력이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반면, 5세 아동의 경우 어휘력과 보문 이해 모두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지는 못하였다. Cassidy 등(2003)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주도하기 위해 풍부한 어휘력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풍부한 어휘력을 가진 아동들은 다른 아동들과 더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언어와 틀린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언어 능력과 틀린 믿음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현진 등, 2008; Astington & Jenkins, 1999; de Villiers, 1995, 2000, 2005; de Villiers & Pyers, 2002; Jenkins & Astington, 1996; Slade & Ruffman, 2005)은 언어가 틀린 믿음 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최근 Milligan, Astington과 Dack(2007)은 9천명의 아동들로부터 수집된 104개의 연구결과들을 메타 분석하여 언어 능력과 틀린 믿음 수행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언어 능력을 일반적 언어 능력, 수용 어휘력, 의미능력, 통사능력, 보문 이해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5개의 언어 유형 가운데 특히 보문구조에 대한 이해가 틀린 믿음 과제 수행에서의 변화를 가장 많이 설명하고, 어휘력이 가장 작은 변화량을 설명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de Villiers(2000)는 보문구조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틀린 믿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수단이 되므로, 보문 이해가 틀린 믿음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재확인되었다. 이현진 등(2008)은 38-47개월 사이의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1년 동안 3번에 걸쳐 보문구조에 대한 이해와 틀린 믿음 이해를 측정한 결과 보문구조에 대한 이해는 틀린 믿음을 예측해 주지만 어휘력은 틀린 믿음 수행을 예측하지 못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틀린 믿음을 예측해 주는 언어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틀린 믿음을 종속변인으로 삼고, 언어변인(보문, 어

휘)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Milligan 등(2007)의 결과에 따라 보문을 먼저 투입하고 어휘 변인 순으로 투입한 결과, 4세 아동의 경우 어휘와 보문 이해 모두 틀린 믿음 수행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5세의 경우 보문 이해만이 틀린 믿음 수행을 예측해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문구조에 대한 이해가 틀린 믿음과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현진 등, 2008; de Villiers, 1995, 2000, 2007; de Villiers & Pyers, 2002)을 지지해 주는 반면, 어휘력이 틀린 믿음 수행을 예측해 준다는 결과(Farrar & Maag, 2002; Watson, Painter, & Bornstein, 2001)와는 대비된다. 어휘력이 틀린 믿음 수행을 예측해 준다는 선행연구들은 2세경에 어휘를 측정하여 4세경에 틀린 믿음 수행과의 관계를 살펴본 종단연구이다. 또한 분석에서 연령을 통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피험 아동의 연령과 연구방법의 차이를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본 연구의 결과는 4세 아동의 어휘력과 5세 아동의 틀린 믿음 수행은 사회적 행동과, 그리고 5세 아동의 보문 이해는 틀린 믿음 수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 틀린 믿음 이해와 정서 이해가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르게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다른 사람들과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타인의 마음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풍부한 어휘력이 도움이 된다는 점, 그리고 보문구조에 대한 이해가 타인의 마음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추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4세와 5세 아동들의 수행을 횡단적으로 다루었기에 틀린 믿음, 정서, 언어,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행동을 부모 또는 교사들이 사회적 기술을 평정한 결과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행동은 생물학적·사회문화적 요인, 인지적·정서적 요인, 개인 특유의 상황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되므로, 일상생활이나 자유놀이 상황에서의 친사회적 행동, 문제행동, 교사와 부모뿐 아니라 또래에 의한 다면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들 변인들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보다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행동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미, 김혜리, 정명숙, 양혜영, 구재선(2008). 유치원 아동의 마음이론과 사회적 능력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3), 21-39.
- 김영옥(2005). 한국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실태 연구. 유아교육연구, 25(3), 51-75.
- 김영태, 장혜성, 임선숙, 배현정(1995). 그림어휘력 검사. 서울: 서울 장애인 종합 복지관.
- 김혜리, 이숙희(2005). 인기 있는 아동은 마음읽기를 잘 하나?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3), 1-18.
- 서미옥(2004). 한국판 취학전 아동용 사회적 기술 척도(K-SSRS: 교사평정용, 부모평정용)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연구, 24(2), 223-242.
- 신유림(2004). 유아의 마음이론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4, 209-223.
- 이현진, M. J. Farrar, H. Seung, 김경아, 채민아, 권은영(2008). 한국 아동에서 살펴본 언어와 틀린 믿음 발달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

- 달, 21(3), 1-20.
- Astington, J. W. (2003). Sometimes necessary, never sufficient: False belief understanding and social competence. In B. Repacholi & V. Slaughter (Eds.),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ory of mind* (pp. 13-38). NY: Psychology Press.
- Astington, J. W. & Jenkins, J. M. (1995). Theory of mind development and social understanding. *Cognition and Emotion, 9*, 151-165.
- Astington, J. W., & Jenkins, J. M. (1999).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language and theory-of-mind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5*(5), 1311-1320.
- Bartsch, K. & Wellman, H. M. (1989). Young children's attribution of action to beliefs and desires. *Child Development, 61*, 946-964.
- Bartsch, K. & Wellman, H. M. (1995). *Children talk about the mind*. NY: Oxford University Press.
- Carpendale, J. I. M. & Lewis, C. (2006). *How Children Develop Social Understanding*. Blackwell Publishing.
- Cassidy, K. W., Werner, R. S., Rourte, M., Zubernis, L. S., & Balaraman, G.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Understanding and Positive Social Behaviors, *Social Development, 12*(2), 198-221.
- Custer, W. L., (1996). A comparison of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contradictory representations in pretense, memory, and belief. *Child Development, 67*, 678-688.
- Cutting, A. L., & Dunn, J. (1999). Theory of mind, emotion understanding, language and family background: Individual differences and interrelation. *Child Development, 70*, 853-865.
- Denham, S. A. (1986). Social cognition, prosocial behavior, and emotion in preschoolers: Contextual validation. *Child Development, 57*, 194-201.
- de Villiers, J. G. (1995). Steps in the mastery of sentence complement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RCD*, Indianapolis, IN.
- de Villiers, J. G. (2000). Language and theory of mind: What are the developmental relationship? In S. Baron-Cohen, H. Tager-Flusberg, & D. Cohen (Eds.), *Understanding other minds: Perspectives from developmental cognitive neurosciences*, 2n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e Villiers, J. G. (2005). Can language acquisition give children a point of view? In Astington, J. W., & Baird, J. A. (Eds.), *Why Language Matters for Theory of Mi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e Villiers, J. G. (2007). The interface of language and Theory of Mind. *Lingua, 117*, 1858-1878.
- de Villiers, J. G., & Pyers, J. E. (2002). Complements to cognition: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lex syntax and false-belief-understanding. *Cognitive Development, 17*, 1037-1060.
- Dunn, J. (1995). Children as psychologists: The later correlat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 understanding of emotions and other minds. *Cognition and Emotion*, 9, 187-201.
- Dunn, J. (2000). Mind-reading, emotion understanding, and relationship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 142-144.
- Eisenberg, N., & Fabes, R. A. (1998). Prosocial development. In D. Kuhn & R. S. Siegl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pp. 701-778). New York: John Wiley & Sons.
- Farrar, M. J., & Maag, L. (2002). Early language development and the emergence of a theory of mind. *First language*, 22, 197-213.
- Gresham, F. M. & Elliott, S. N. (1990). *Social skills rating system*. Circle Pines, MN: American Guidance Service.
- Hickling A. K., Wellman, H. M., & Gottfried, G. (1997).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others' mental attitudes toward pretend happening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5, 339-354.
- Howlin, J., Baron-Cohen, S., & Hadwin, P. (1999). *Teaching children with Autism to Mind-Read*. John Wiley & Sons Ltd.
- Hughes, C., & Leekam, S. (2004). What are the links between theory of mind and social relations? Review, reflections and new directions for studies and atypical development. *Social development*, 13, 590-619.
- Jenkins, J. M., & Astington, J. W. (1996). Cognitive factors and family structure associated with theory of mind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2(1), 70-78.
- Lalonde, C. E., & Chandler, M. J. (1995). False belief understanding goes to school: On the social-emotional consequences of coming early or late to a first theory of mind. *Cognition and Emotion*, 9, 167-185.
- Milligan, K., Astington, J. W., & Dack, L. A. (2007). Language and Theory of Mind: Meta-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Language Ability and False-belief Understanding. *Child Development*, 78(2), 622-646.
- Perner, J. (1991). *Understanding the representational mind*. Cambridge, MA: MIT Press.
- Shultz, T. R., Wells, D., & Sarda, M. (1980). The development of the ability to distinguish intended actions from mistakers, reflexes and passive movements.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 301-310.
- Slade, L., & Ruffman, T. (2005). How language does (and does not) relate to theory of mind: A longitudinal study of syntax, semantics, working memory and false belief.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3, 117-141.
- Slaughter, V., Dennis, M. J., & Pritchard, M. (2002). Theory of mind and peer acceptance in pre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 545-564.
- Sutton, J., Smith, P. K., & Swettenham, J. (1999). Social cognition and bullying. Social inadequacy or skilled manipulation?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7,

453-450.

Watson, A. C., Nixon, L. C., Wilson, A., & Capage, L. (1999). Social interaction skills and theory of mind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5*, 386-391.

Watson, A. C., Painter, K. M., & Bornstein, M. H. (2001). Longitudinal relations between 2-year-olds' language and 4-year-olds' theory of mind. *Journal of Cognition and*

Development, 2, 449-457.

Wellman, H. M. (1990). *The child's theory of mind*. Cambridge, MA: Bradford Books.

1차 원고 접수: 2008. 10. 15

수정 원고 접수: 2008. 11. 10

최종게재결정: 2008. 11. 11

The Relationships among False Belief, Emotion, Language, and Social Behavior in Four- and Five-Year-Old Children

Kyung-A Kim* Hyeon-jin Lee** Eun-Yeong Gwon**

*Center of Counseling Research of the Korean Language, Yeungnam University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Yeungnam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among false belief, emotion, language, and social behavior in four- and five-year-old children. The participants were 30 four-year-old children and 30 five-year-ol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in two kindergartens. The children's abilities were measured by using language tasks, false belief tasks, emotional perspective taking tasks, and the Korean Version of the Social Skills Rating System-Preschool Form (K-SSRS). The results showed that 4-year-old children's false belief performance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emotional perspective taking whereas 5-year-old children's false belief performance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complement understanding and social skill scores. The findings also suggest that understanding of false-belief may be separated from understanding of emotion in terms of aspects of social behavior in young children.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receptive vocabulary predicted social behavior in 4-year-olds, while the false belief performance predicted social behavior in 5-year-olds. In addition, the complement understanding predicted the false belief performance in 5-year-old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vocabulary along with the false belief performance is a predictor of social behavior in Korean children, the complement understanding is a predictor of false belief reasoning.

key words: false belief, emotional perspective taking, vocabulary, complement understanding, social skill.

부록 : 검사 과제

과 제	내용과 질문	
틀린 믿음 (위치변화)	케익	<p>정우와 엄마는 케익을 샀어. 그런데 정우는 나가서 놓고 싶어졌어. 정우는 놓고 들어와서 먹으려고 케익을 찬장에 넣어 놓았어. 그리고 나서 놀러 나갔어. 그 후 엄마가 들어왔어. 엄마는 “케익이 여기 있으면 녹을텐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케익을 찬장에서 꺼내서 냉장고에 넣었어.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갔어. 그 후 정우는 집으로 돌아와서 케익을 먹으려고 부엌으로 들어갔어.</p> <p>틀린 믿음 질문: 정우가 부엌에 들어왔을 때 정우는 어디서 케익을 찾겠니? 기억질문: 케익은 지금 어디에 있니?</p>
	그림그리기	<p>영희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그런데 영희는 과자가 먹고 싶어졌어. 영희는 그러던 그림을 가방 속에 넣었어. 그리고 나서 부엌으로 나갔어. 그 후 아빠가 들어왔어. 아빠는 가방을 열어보고는 “그림이 거저질텐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림을 가방에서 꺼내서 서랍 속에 넣었어.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갔어. 그 후 영희는 그림을 계속 그리려고 방으로 돌아왔어.</p> <p>틀린 믿음 질문: 영희가 방에 들어왔을 때 영희는 어디서 그림을 찾겠니? 기억질문: 그림은 지금 어디에 있니?</p>
	피자	<p>유정아와 엄마는 피자를 사왔어. 그런데 유정이는 친구와 놀고 싶어졌어. 유정이는 놀고 와서 먹으려고 피자를 찬장에 넣어 놓았어. 그리고 나서 놀러 나갔어. 그 후 엄마가 들어왔어. 엄마는 “피자가 여기 있으면 상할텐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찬장에 있는 피자를 냉장고에 넣었어.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갔어. 그 후 유정이는 집으로 돌아와서 피자를 먹으려고 부엌으로 들어왔어.</p> <p>틀린 믿음 질문: 유정이가 부엌에 들어왔을 때 유정이는 어디서 피자를 찾겠니? 기억질문: 피자는 지금 어디에 있니?</p>
	레고	<p>미선이는 레고로 집을 만들고 있었어. 그런데 미선이는 과자가 먹고 싶어졌어. 미선이는 만들던 레고를 바구니에 넣었어. 그리고 나서 부엌으로 나갔어. 그 후 아빠가 들어왔어. 아빠는 “레고가 부서질텐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바구니에 있던 레고를 꺼내서 상자에 넣었어.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갔어. 그 후 미선이는 레고를 계속 만들려고 방으로 돌아왔어.</p> <p>틀린 믿음 질문: 미선이가 방에 들어왔을 때 미선이는 어디서 레고를 찾겠니? 기억질문: 레고는 지금 어디에 있니?</p>
언어 (보문)	컴퓨터	<p>경우 아빠와 엄마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아빠가 엄마에게 “경우가 뭐하고 있어?”라고 물어왔어. 엄마는 아빠에게 “경우가 뭐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라고 물었어. 아빠는 “경우가 차고 있어야지.”라고 대답했어. 하지만 엄마는 경우가 지금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p> <p>want 질문: 아빠는 경우가 뭐를 하고 있기를 원했어? think 질문: 엄마는 경우가 뭐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p>
	사과	<p>기주 아빠와 엄마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아빠가 엄마에게 “기주가 뭐하고 있어?”라고 물어왔어. 엄마는 아빠에게 “기주가 뭐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라고 물었어. 아빠는 “기주가 사과를 먹고 있어야지.”라고 대답했어. 하지만 엄마는 기주가 지금 동생과 씨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p> <p>think 질문: 엄마는 기주가 뭐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want 질문: 아빠는 기주가 뭐를 하고 있기를 원했어?</p>
	강아지먹이	<p>유미 아빠와 엄마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아빠가 엄마에게 “유미가 뭐하고 있어?”라고 물어왔어. 엄마는 아빠에게 “유미가 뭐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라고 물었어. 아빠는 “유미가 강아지 먹이를 줘야지.”라고 대답했어. 하지만 엄마는 유미가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p> <p>want 질문: 아빠는 유미가 뭐를 하고 있기를 원했어? think 질문: 엄마는 유미가 뭐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p>
	목욕	<p>나현이 아빠와 엄마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아빠가 엄마에게 “나현이가 뭐하고 있어?”라고 물어왔어. 엄마는 아빠에게 “나현이가 뭐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라고 물었어. 아빠는 “나현이가 목욕을 해야지.”라고 대답했어. 그러자 엄마는 “맞아요. 나현이는 지금 목욕을 하고 있어요.”라고 대답했어. 하지만 엄마는 나현이가 지금 동화책을 읽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p> <p>think 질문: 엄마는 나현이가 뭐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want 질문: 아빠는 나현이가 뭐를 하고 있기를 원했어?</p>
정서조망수용	기쁨	<p>아빠가 지영이에게 새 인형을 사주셨어.</p> <p>정서질문 : 아빠가 새 인형을 사주셔서 지영이는 기분이 어떨까? 현종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p> <p>정서질문 :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현종이는 기분이 어떨까?</p>
	슬픔	<p>현종이와 제일 친한 친구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어.</p> <p>정서질문 : 친구가 이사를 가서 현종이는 기분이 어떨까? 지영이는 엄마가 아파트 놀이공원에 놀러 갈 수 없었어.</p> <p>정서질문 : 엄마가 아파트 놀이공원에 갈 수 없는 지영이는 기분이 어떨까?</p>
	화남	<p>엄마가 수미에게 수미가 먹기 싫어하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셨어.</p> <p>정서질문 : 엄마가 먹기 싫은 음식을 먹으라고 하셨어 수미는 기분이 어떨까? 동생이 진우의 장난감 비행기를 빼앗아 갔어.</p> <p>정서질문 : 동생이 장난감 비행기를 빼앗아 가서 진우는 기분이 어떨까?</p>
	무서움	<p>진우는 불이 꺼진 캄캄한 방에 혼자 남겨졌어.</p> <p>정서질문 : 캄캄한 방에 혼자 남겨진 진우는 기분이 어떨까? 아주 커다란 개가 수미를 향해 쫓아오고 있어.</p> <p>정서질문 : 커다란 개가 쫓아와서 수미는 기분이 어떨까?</p>